

해외출장
보고서

2026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고도화 지원

어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민관협력형 지역만들기 사례조사

2026.3.16 - 3.21.
일본 오노미치, 고베, 교토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a u r ;) 건축공간연구원

차 례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1
3. 세부 일정	2
II. 관계자 면담 및 사례조사	4
1. 민간조직 사업참여를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 사례: 오노미치	4
2. 청년고용 및 지역고용 촉진을 통한 어촌재생 사례: 아와지섬	23
3.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 사례: 카미카츠쵸	29
4. 전통마을 경관보존을 통한 관광특화 어촌만들기 사례: 이네쵸	35
III. 출장 효과 및 시사점	41
IV. 취득자료	44

1.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개요

- 과 제 명 : 2026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고도화 지원
- 출장기간 :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1일(토) / 5박 6일
- 출장지역 : 일본 오노미치, 고베, 교토
- 출 장 자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 출장목적 : 민관협력형 어촌어항 재생 우수사례 방문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본 과제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고도화지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과 ‘어촌뉴딜 3.0(어촌회복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계획 수립·성과진단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본 과제에서 지원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어촌지역의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활력을 위한 지역사회문제 발굴과 사회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이에 ‘22년부터 민관협력형 어촌어항재생 사업 일환으로 앵커조직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 전담부서나 앵커조직 모두 민관협력형 사업 추진 경험과 참조사례 부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선례를 찾아 관련 제도와 현장 적용 과정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출장은 일본 오노미치시, 아와지섬, 카미카츠초, 이네초 지역에서 지방창생 정책에 기반한 민관협력 사업,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자원을 통한 관광특화 사업 등 다양한 주체와 사업방식이 현장에 접목되는 과정에 대한 심화조사를 목적으로 함
- 특히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장기간 현장에 정착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앵커조직으로서의 역할 변화, 링커조직의 참여와 협력 방안,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협업구조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조사내용

- 민간조직 사업참여를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 사례: 오노미치
- 청년고용 및 지역고용 촉진을 통한 어촌재생 사례: 아와지섬
-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 사례: 카미카츠초
- 전통마을 경관보존을 통한 관광특화 어촌만들기 사례: 이네초

3. 세부 일정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3/16 (월)	09:00~12:00	세종	청주	공항이동	자차이용
	13:20~14:40 (1h 20m)	청주	히로시마	출국	청주공항(CJJ)→히로시마공항(HIJ) AeroK RF 386
	14:40~16:00	히로시마	오노미치	이동 및 숙소 체크인	히로시마→오노미치 *공항버스(히로시마공항→오노미치역)
	16:00~18:00	오노미치		[관계기관 업무협의] - 출장일정 및 조사내용 협의	해수부, 어촌어항공단
	18:00~			석식	숙소 Hotel Cycle
3/17 (화)	08:30~09:00	오노미치		조식 및 이동	
	09:00~12:00			[오노미치U2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 오노미치 U2 복합 시설(히로시마 항만해운창고 재생) 운영 등	onomichi U2
	12:00~13:00			중식 및 이동	
	13:00~16:00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관계자 면담 및 빈집재생 현장조사] -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 프로젝트 - 오노미치 빈집, 유희공간 활용 방문자 시설 및 코워킹 공간 조성 사례 조사	아나고노네도코(あなごのねどこ) 등 재생 사례 대상지
	16:00~17:30			[오노미치市 농림수산과 면담] - 오노미치시 유희어항시설 활용 프로젝트 등	오노미치시청
	17:30~			석식 및 숙소 이동	숙소 Hotel Cycle
3/18 (수)	08:00~09:00	오노미치		조식 및 이동	
	09:00~10:30			[오노미치 세어 운영자 면담] - 오노미치시 상공과 이주·정책 시책 및 오노미치 세어 추진 사항	오노미치시청
	10:30~14:30	오노미치	아와지	중식 및 이동	오노미치→고베→아와지섬 *신칸센(신오노미치역→신고베역)
	14:30~17:30	아와지		[아와지 지방창생세미나 및 주요 현장 조사] - 지방창생세미나 및 노지마 스코라 (のじまスコラ) 등 현장 조사	아와지 노지마스코라
	17:30~	아와지	고베	석식 및 숙소 이동	숙소 ANA Crowne Plaza Kobe By IHG
3/19 (목)	08:00~11:00	고베	카미카초쵸	조식 및 이동	숙소 → 카미카초쵸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11:00~12:00	카미카츠초		[카미카츠초 지역재생 담당자 면담] - 제로 웨이스트센터 등 답사	제로웨이스센터
	12:00~13:00			중식 및 이동	
	13:00~17:00			[카미카츠초 행정담당자 면담 및 행정시찰] - 나뭇잎 비즈니스, 지자체 대응 사항 등	합동회사 판게아
	17:00~	카미카츠초	고베	석식 및 숙소이동	숙소 ANA Crowne Plaza Kobe By IHG
3/20 (금)	08:00~10:00	고베	이네초	조식 및 이동	숙소 → 이네초
	10:00~12:00	이네초		[이네초 어촌재생 관계자 면담] - 이네초 관광협회 등 관련 주체 면담	이네초 관광협회
	12:00~14:00			식사 및 이동	
	14:00~17:30			[이네초 어촌재생 사례 조사] - 해안마을 전통목조가옥(후나야) 보존 지역, 어촌 관광 운영프로그램 등	
	17:30~	이네초	교토	석식 및 숙소 이동	숙소 Sotetsu Fresa Inn Kyoto-Hachijoguchi
3/21 (토)	08:30~09:00	교토		조식 및 체크아웃	숙소 → 교토
	09:00~12:00			[귀국 준비 및 답사]	교토역사자원 보존지구
	12:00~14:00			중식 및 이동	교토→간사이공항
	19:20~21:05 (1h 45m)	오사카 간사이	청주	귀국	간사이공항(KIX)→청주공항(CJU) AeroK RF 317
	21:05~	청주	세종	세종이동	개인차량

• 방문지 위치도



II. 관계자 면담 및 사례조사

1. 민간조직 사업참여를 통한 어촌 관광활성화 사례: 오노미치

1) 오노미치시 지방창생정책 및 어촌어항재생 관련 계획

□ 오노미치시 마을, 사람, 일 창생 추진 교부금 계획¹⁾

- 오노미치의 강점을 살려 안정된 일자리와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
 - 기간산업, 지역 산업 지원을 충실히 하고 지역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 내 경제 순환, 고용 창출, 다양한 담당자 확보, 인재 육성, IoT, AI를 포함한 기술혁신 대응 등으로 지역 산업 강화와 신규 창업에 의한 지역 활성화 추진
 - 오노미치시의 강점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토우치 십자로로를 거점으로 민간 활력을 살려, 다양한 관광 콘텐츠 프로모션 강화, 인바운드 대응, 관광 소비액 향상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관광 시책을 목표
 - 구체적 사업은 판로 개척 보조금, 산업 지원원 배치 등의 사업과 사업자금 조달지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활용
- 오노미치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을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
 - 오노미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취업 기회와 주민욕구에 대응한 주거 환경 확보를 통한 지역에 대한 애착,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및 사람들의 교류 기회 증진을 통한 지속 거주할 수 있는 오노미치 라이프스타일을 확립
 - 이를 통해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고향 취업 촉진 사업, 기업 매력 발신 사업 등을 추진
-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누구나 안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힘쓰는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유지(도시공원시설 개보수 사업 등) 및 스마트 시티 추진

□ 세토우치, 빙고나다 해역의 어업, 관광, 생활을 지원하는 항만 만들기 계획²⁾

- 사업추진은 히로시마현이며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
- 세토우치 바닷길 구상
 - 세토 내해 전체의 매력 향상과 정보 발신 강화, 관광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새로운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등 세토 내해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며, 세토 내해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 세토우치 크루징 촉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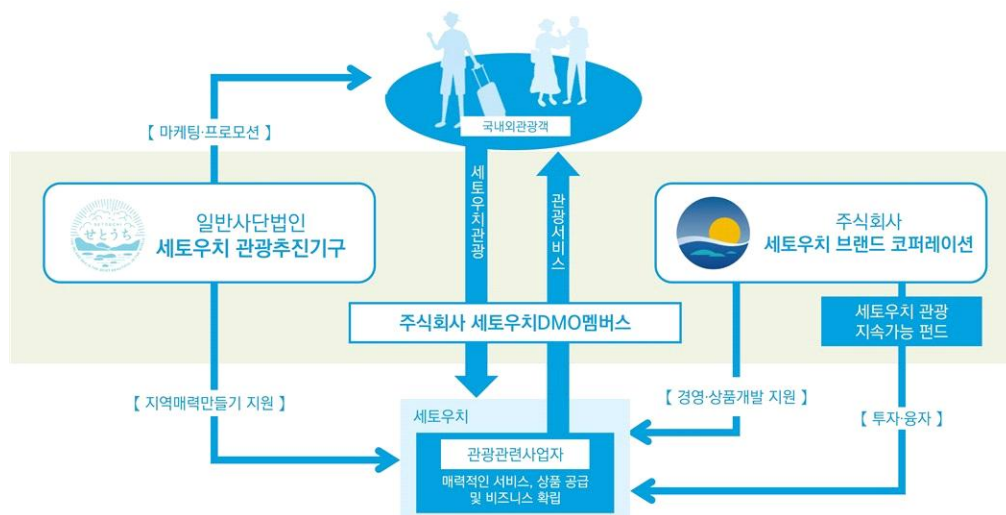
1) 오노미치시 지역 재생 계획.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dai73nintei/plan/a1104.pdf> (접속일자: 2026.03.07.)

2)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dai73nintei/plan/y1149.pdf> (접속일자: 2026.03.07.)

- 히로시마현은 세토 내해의 다도해 경관(多島美)을 활용한 관광 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토우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는 “세토 내해 바닷길 구상(瀬戸内海の道構想)”의 일환으로, 해상을 통한 관광지 방문과 세토 내해 크루징을 촉진하여 보다 시야가 넓은 관광산업 진흥에 노력 중
- 방문객 선착장 정보 및 주변 관광 정보 제공, 방문객 선착장 예약 대행, 이용자 문의 대응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세토 내해 크루징 포털 사이트 운영)

□ 관련조직

- 세토우치, 바다의 길 네트워크 추진협의회³⁾
 - 세토우치의 각 지역이 일체가 되어 바다를 활용한 지역만들기를 실천함으로써, 세토 내해 지역 전체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5월에 설립
 - 세토우치 연안 107개 시정촌과 11개 부현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국토교통성 4개 지방정비국 항만공항부과, 지방운수국이 지원하는 광역 협의체
- 세토우치 DMO⁴⁾
 - 지방창생에 기여하는 관광 분야 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관민 연계 조직
 - 7개 현(효고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아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과 7개 지방은행이 중심이 되어 2016년에 발족
 - 행정 주도로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 “세토우치 관광 추진 기구”와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 내 외의 민간기업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세토우치 브랜드 코퍼레이션” 2개로 구성
 - 세토우치다움을 콘셉트로 한 6개의 전략 테마에 지속가능성을 추구 (크루즈, 사이클링, 아트, 음식, 숙박, 지역산품)



세토우치 DMO 개념도

출처: <https://setouchitourism.or.jp/ia/setouchidmo/> (접속일자: 2026.03.07.)

3) <https://www.uminet.jp/about/detail.php?id=8> (접속일자: 2026.03.07.)

4) <https://setouchitourism.or.jp/ja/setouchidmo/>, <https://www.env.go.jp/content/000123517.pdf> (접속일자: 2026.03.07.)

- 지역 활성화 협력대 (地域おこし協力隊)⁵⁾
 -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의 인재를 받아들여 지역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주,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오노미치시에서는 현재 (2024년 8월) 2명의 지역활성화 협력대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동 (SUP 강사, 녹조 청소 등 해변 정화 활동, 모모시마(百島) 지도 제작, 식생활 교육이나 육아 지원 이벤트, 공민관 행사, 학교에서의 지역 이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오노미치 U2 프로젝트 관계자 면담

- 일 시 : 2026년 3월 17일(화) 10:00~12:00
- 장 소 : 오노미치 U2 (5-11 Nishigoshochō, Onomichi, Hiroshima 722-0037 일본)
- 참석자 : (세토우치 크루즈) 카스미 타카기(高木加有) U2 담당, 요시키 오오니시(大西好樹) 홍보 브랜드 담당, 슈니치 오스미(大住一俊) 부장 외 2인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오노미치 U2 시설 현황 및 운영 사례

□ 시설 개요 및 재생 배경

- 오노미치 U2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철도 운송의 거점인 물류 창고로 건립된 해운창고(약 2,000㎡)로 물류 체계 변화(트럭 수송)로 유희화된 창고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 본 사업은 2012년 히로시마현이 오노미치시와 공동으로 '사이클리스트 프렌들리(Cyclist Friendly)'를 핵심으로 한 복합 시설(호텔, 카페, 베이커리, 자전거 쉼) 조성을 위해 “오노미치 이토사키항구 니시고쇼지구(현영2호창고 및 주변)활용사업자”를 공모하여 리모델링 계획안과 사업자 선정
- 오노미치 U2는 창고 내부 골조를 건드리지 않고 건물 내부에 새로운 건물을 삽입하는 '박스인 박스' 방식을 채택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있음

[오노미치 U2 공모사업 및 추진절차]⁶⁾

- 오노미치역 앞의 역사 깊은 해운창고 중 하나인 니시고쇼 2호 창고(1943년 건립, 약 2,000㎡)는 종료된 오노미치역 재개발사업의 연장으로서 이용전환을 검토함
- 이 시설을 포함한 일대는 '사이클링포트 미나토오아시스 오노미치'로 2010년 3월에 국토교통성 추고쿠(中国) 지방정비국에 인정등록을 받아 렌탈 사이클터미널, 사위시설의 정비 등 사이클링기능을 충실하게 담기로 함
- 2012년 5월 히로시마현과 오노미치시가 공동으로 세토우치 브랜드 확립을 위한 공모를 시작함
 - 2011년 히로시마현은 세토우치 해변에 있는 문화재와 전통행사를 시작으로 한 다채로운 지역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매력향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세토우치 우미노미치(바다의 길) 구상'을 책정함
 - 이와 함께 '세토우치 브랜드'의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브 브랜드, 전략테마를 체계화하고 전략에 따른 개별프로젝트 성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https://www.city.onomichi.hiroshima.jp/soshiki/2/75133.html> (접속일자: 2026.03.10.)

〈공모 활용의 기본 컨셉〉

- ① 세토우치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집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토우치 브랜드의 형성 등에 기여하는 거점의 정비
 - ② 오노미치 수변도로에 면하는 수변공간의 경관과 세워진 지 70년된 약 2,000㎡의 창고 대공간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한 활기 창출
 - ③ 음식물 제공과 물품 판매 등으로 활기를 만드는 서비스와 이벤트, 교류 기능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사이클리스트도 이용하기 쉬운 공간
 - ④ 공공스페이스를 창고 본체의 10%~ 50% 정도 범위 내에서 설정
- 오노미치 U2 프로그램은 사이클리스용 호텔, 레스토랑, 세토우치에 관한 물품판매, 공공공간으로 조성으로 공모
 - 자전거를 탄 채로 체크인 가능한 호텔을 컨셉으로 창조적인 건축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
 - 주요 타겟은 사이클리스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이지만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텔이 주축이 되지만 레스토랑이나 카페, 빵집 등의 업종을 유치
 -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오노미치시는 일본 제일의 사이클링도로로서도 명성 높은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안도로의 진흥과 자전거 시책의 추진을 위해, 세계유수의 자전거 메이커인 GIANT사의 판매점(GIANT STORE)을 유치해 오노미치 U2에 점포 입점 결정
 - 히로시마현과 에히메현을 중심으로 한 세토우치 섬박람회 '세토우치시마노와 2014'의 스타트에 맞춰 2014년 3월 22일에 전국 최초의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복합시설 'ONOMICHI U2 (2호창고(일본어로 창고가 우와야)에서 U2라는 이름을 채용)'가 탄생
 - 프로그램 결정 이후, 리모델링을 위한 히로시마현 주도의 발주가 진행되었고 사업주체가 일반재단법인 민간 도시개발추진기구(MINTO)의 마을재생출자를 받아 공사 진행(부지면적 : 5,247㎡, 연면적 : 2,693㎡)
 - 시설소유는 히로시마현에 있고 현에서 임대(5년 단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건축공사 초기비용은 현이 출자(3억엔)

[오노미치 U2 운영주체 변화 과정]

- 2014년 3월: ONOMICHI U2 오픈
 - 제안공모에서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 SUPPOSE DESIGN OFFICE의 “공동 제안”이 선정되었고, 常石造船 관련회사(현 TLB로 표기)가 보조금·차입·민간도시개발기구 출자 등을 활용해 히로시마현으로부터 창고를 임차→정비→개업한 구조
 - 즉, “아이디어/기획·콘텐츠(=DL)” + “자본·자산측 실행(=常石그룹 측 관련회사)”의 결합 모델
- (운영 조직의 ‘법인’ 분리): 「株式会社Onomichi U2」 등의 형태로 운영
 - 디스커버링크 소속 인력이 ‘株式会社Onomichi U2’에서 역할(대표 등)을 수행
 - 현장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시설 단위 법인(예: Onomichi U2) 을 두는 형태
- 2019년 4월: DLせとうち “체제 변경(사업 재편)” → U2 등 숙박·음식 사업 이관
 - NTT회사에서 2019년 4월 체제변경을 실시, ‘ONOMICHI U2 등은 ツネイシ의 그룹회사로 재통합, 세토우치크루즈가 운영
- 2022~2023년: 常石(ツネイシ)그룹 내 라이프&리조트 사업 재편 → 운영주체 통합
 - 常石그룹 보도자료(2022.11)에서 라이프&리조트 사업 재편의 대상 중 하나로 ONOMICHI U2 명시, 2023.1.1.부로 ‘세토우치크루즈(せとうちクルーズ)’가 그룹 내 2개사(Tsuneishi Resort, TLB)를 흡수합병
- (현재) 2024~2025년: “운영회사 = 株式会社せとうちクルーズ”로 명시
 - 오노미치 U2 운영은 常石그룹의 BtoC(관광·리조트·호스피탈리티) 측 안에서 관리
 - (디스커버링크 사업 이관의 의미) DL은 원래 U2를 포함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2019.4 재편에서 U2 같은 ‘숙박·음식(운영 난이도/고정비 큰)’ 사업을 별도의 회사로 넘기고, DL은 ONOMICHI SHARE·尾道デニム 등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 오노미치 U2 성립 과정에서 常石造船 관련회사(현 TLB)가 시설 정비/자금조달/임차를 수행한 것으로 애초부터 'DL의 기획+그룹(常石) 측 자산/자본'의 협업 구조 가능성
- ONOMICHI U2 ↔ 두 회사의 관계(정리 도식)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 U2를 대표 프로젝트로 기획/콘셉트/브랜딩 및(초기) 운영에 깊게 관여, 다만 2019.4 이후 U2 등은 그룹쪽(ツネイシ 계열)으로 재통합
 - TLB(ツネイシ 계열로 언급): 시설정비·임차·자금조달 측 핵심 역할
 - せとうちクルーズ(ツネイシ 계열): 2023년 합병을 통해 TLB 등을 흡수, 현재는 U2 운영회사로 공식 표기

□ 사이클리스트 특화 전략 및 지역 브랜딩

- 오노미치 U2는 운영주체가 설계에서 시공, 운영관리를 일괄 추진하는 방식으로 히로시마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장기 차지권에 의해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형 복구할 수 있도록 쉽게 철거 가능한 구조로 설계
- 복합건물의 운영 프로그램은 사이클링 로드와 지역특산 데님 등을 활용한 특화전략 반영
 - 세계 7대 사이클링 로드인 '시마나미 카이도'의 기점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HOTEL CYCLE⁷⁾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전거 이용자(사이클리스트)에게 친화적인 호텔을 염두에 두고 설계. 객실에는 자전거를 걸어 둘 수 있는 사이클 행거가 설치되어 있음
 - 지역 전통 공예인 '빈고 가스리(천)'와 지역 특산물 '데님' 소재를 객실 어메니티(파자마 등)에 적용하여 지역 문화를 홍보함
 - 숙박객은 HOTEL CYCLE 또는 ONOMICHI U2 내에 있는 자전거 전문 매장 “자이언트(GIANT) “에서 자전거 대여 가능⁸⁾
- 유명 프랜차이즈(스타벅스 등)를 입점시키는 대신 전 시설을 직영하여 오노미치만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ONOMICHI U2 내부에 오노미치 거리의 작은 건물들이 늘어선 풍경을 재현함으로써, 도시와의 연속성과 오노미치다운 분위기를 이 공간 안에 구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관내에 작은 상점과 골목으로 이루어진 오노미치의 이미지를 담아, 창고 전체를 하나의 “마을”로 설정하고 오노미치 혼도리 상점가에서 영감을 받아, 양쪽에 상점과 카페가 늘어선 긴 중앙 통로가 HOTEL CYCLE까지 이어져 있음

□ 사업 구조 및 운영 성과 운영 주체

- 초기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지역 기반 기업인 '츠네이시 그룹(조선·해운 전문)'의 자회사가 운영 중임
- 사업초기 내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경영 안정화 및 흑자를 달성함
 -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인) 비율이 과거 30%에서 현재 50~60%까지 급증하였으며, 내국인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에 이용하는 외국인 덕분에 요일별 수요 편차를 극복함

6) 서수정(2016), 일본 도시재생기금 활용 사례, 출장보고서, pp.33~37

7) HOTEL CYCLE 홈페이지 <https://onomichi-u2.com/stay/> (접속일자: 2026.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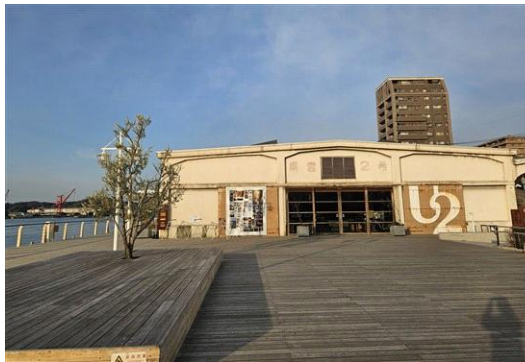
8) <https://onomichi-u2.com/about/> (접속일자: 2026.03.11.)

- 레스토랑은 지역 농가와 협업하여 계절별 식재료를 공급받고 메뉴를 구성하며, 1층에는 지역특산물 판매 매장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전국 및 지역의 창의적인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음

□ 행정 협력 및 규제 완화

-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 항만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으나, 히로시마현이 시마나미 카이도를 핵심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여 건축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줌
- 복합건물을 둘러싼 우드데크, 공공화장실 등 공공 인프라는 오노미치시(市)가 정비하고 민간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함

□ 현장 사진



해양창고를 활용한 오노미치 U2



직영 판매시설 및 식당



자전거 여행객 대상 숙소



숙소 내 자전거 거대대



지역 사이클링 로드 투어와 연계한 자전거 대여 공간



지역농가, 직영상가 등의 팝업스토어 개최 팸플렛



행정에서 설치한 연계 해양데크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3) 오노미치 빈집재생 프로젝트 관계자 면담 및 답사

- 일 시 : 2026년 3월 13일(수) 14:00~16:00
- 장 소 : [출발] あなごのねどこ(2 Chome-4-9 Tsuchido, Onomichi, Hiroshima 722-0035 일본) → [도착] 大広間(1-26 Nishitsuchidocho, Onomichi, Hiroshima 722-0032 일본)
- 참석자 :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대표이사 토요다 마사코(豊田雅子) 외 4인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 재생사례 답사 및 질의응답

□ 오노미치 구시가지 현황 및 프로젝트 배경

-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평지에 형성된 도시로, 경사가 급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많아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30년 전 역 반경 3km이내 약 500채의 빈집이 존재했으며, 10채 중 1채꼴로 빈집이었음.
-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오노미치시와 함께 '오노미치시 빈집 뱅크'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200채의 빈집을 매칭시켜 줌
 -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재생프로젝트는 2007년 빈집재생과 이주지원을 하는 시민단체로 시작
 - 고령화와 빈집, 폐가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언덕 마을에 정착할 이주자를 모집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 차세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언덕 마을 오노미치의 거리 풍경을 후세에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 주민들과 쌓아 온 네트워크와 1,500건이 넘는 이주 상담 경험,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빈집 재생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살려, 지금까지 140팀 이상이 오노미치로 이주하고 빈집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오노미치로 이주하고 싶거나 빈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시가지에 오래된 집을 보유한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NPO법인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 핵심 가치⁹⁾

- 빈집×건축
 - 변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마치야(전통 상가주택)와 토장(土蔵), 다실과 일본 정원이 딸린 저택, 서양식 건축물 등 다양한 형태 공존
 - 또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변화 많은 지형에 맞춰 지어진 비정형 주택, 조망을 중시한 절경의 집, 증축을 거듭해 독특한 형태가 된 집, 희소한 목조 3층 건물 등 생활감이 살아 있는 오노미치다운 개성적인 집들이 가득함
 - 이러한 오노미치 건축의 매력과 점차 사라져 가는 장인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

9) <https://www.onomichisaisei.com/about.php> (접속일자: 2026.03.11.)

- 빈집×환경
 - 오래된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산업 폐기물과 산림 벌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친환경 활동
 - 또한 빈집 방치의 원인 중 하나인 불필요한 가재도구의 재사용 및 재활용, 폐자재와 옛 물건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
 - 신축이 불가능한 경사지의 빈터 등은 밭이나 공원 등으로 조성(녹지화 운동)
- 빈집×커뮤니티
 - 빈집의 새로운 이주자를 찾고 새 이주자에게 생활 조언을 제공하며, 빈집과 빈터를 활용한 세대 간 교류와 각종 행사 기획 등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 빈집×관광
 - 1~2일의 짧은 일정으로는 깊이 있는 오노미치의 도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방문 혹은 장기 체류를 권장
 - 이에 빈집을 활용한 단기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머물고 싶은 분이나 오노미치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공
 - 또한 주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도 취미 상점이나 공방 등으로 재생하여, 산책과 골목 탐험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빈집×아트¹⁰⁾
 - 오노미치는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에게 사랑받아 온 도시로 앞으로도 오노미치에서 세 계로 뻗어나갈 예술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빈집을 미술이나 문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기숙사, 아틀리에, 갤러리, 세미나 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예술가 체재 제작)를 지역에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체류와 창작, 발표가 가능한 공간으로 빈집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의 힘으로 오노미치를 더욱 빛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함

□ 주요 활동 내용

- 오노미치 건축 학교
 - 오노미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기술 계승 촉진 및 앞으로의 오노미치 주택 건축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수시모집)
 - 건물 탐방편: 전문가와 함께 오노미치 거리를 산책하며 독특한 건물을 방문, 견학
 - 재생 현장편: 실제 재생 현장에서 작업을 체험
- 오노미치 빈집에 대한 담화
 - 빈집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진행하고, 각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이 목적
 - 매달 오노미치의 빈집 문제와 도시 재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스트를 다양한 분야에서 초대하여 개최하며, 게스트의 체험담이나 빈집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참여자들이 정보 교환

10)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풍부한 인재 활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오리지널 상품을 제작, 판매. 언덕과 골목의 빈집에 거주하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불편하지만 오노미치다움을 지켜가” 그들의 삶을 응원하게 되며, 이는 실제 빈집 재생으로도 이어짐. 모든 상품은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오노미치만의 개성 있는 곳으로, 오노미치 기념품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출처: <https://www.onomichisaisei.com/annai.php?itemid=263>)

- 빈집 재생 피크닉
 - 작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빈터에 나가 청소와 제초 작업을 자원봉사 진행
 - 또한 빈터의 장래 활용 방법도 함께 고민(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원, 텃밭, 과수원, 꽃밭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터를 재생하는 계획)
- 빈집 재생 이벤트
 - 경사지에 위치한 오래된 빈집 대부분은 손상이 심하고, 빈집 복원에 드는 비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
 - 특히 차량 접근이 어려운 경사지에서는 공사비가 평지의 2~3배에 달하여 매우 큰 문제로 작용
 - 이에 빈집 재생 복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재생 대상 건물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 이벤트 자체를 즐기는 동시에, 경사지의 현황과 오래된 집의 장점을 체험하고, 매번 변화하는 재생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현장에서 열리는 빈집 재생 베틀시장
 -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사지에 있어 가재도구를 운반하기 어렵다는 점, 많은 집이 쌓여 새로운 입주가 어려운 상태는 경사지 빈집의 만성적인 문제, 이러한 집을 재활용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 “현장에서 열리는 빈집 재생 베틀시장(現地で空き家再生蚤の市)”임
- 마을 만들기 발표회¹¹⁾
 - 빈집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포지엄
 - 연구자의 시각에서 본 현황 조사 보고와 분석, 향후 제안 등 매회 주제를 달리하여 진행

□ 주요 재생 거점 및 운영 모델

- 아나고노네도코(穴子のねどこ)는 100년 된 메이지 시대 마을 가옥(町屋)을 재생한 게스트하우스, 카페, 서점 복합 공간으로 저렴한 숙박료(약 3,000엔)로 청년 및 외국인 여행자를 유치하여 지역 정착 입구 역할을 수행
- 구 산부인과 건물(오노미치 비우지잉)은 1938년 건립된 목조 3층 건물을 활용하여, 서점, 갤러리로 활용하고, 이주 희망자나 학생들을 위한 셰어하우스(월 단위 거주)로 활용 중
- 오노미치 가우디 하우스(尾道ガウディハウス)는 경사지에 위치한 독특한 서구풍 목조 건축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오노미치 경사지 빈집 재생의 상징적 사례이며, 현재 일본식 공간을 살린 대여 및 숙박시설로 활용 중임
- 미하라시테이(みはらし亭)는 100년 된 별장 건축물을 재생한 숙박 시설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차량 진입 불가로 50명이 줄을 서서 자재를 운반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음

11) <https://www.onomichisaisei.com/event.php>

□ 지속 가능한 운영 및 재정 구조

- 소유주로부터 저렴하게 임차(또는 일정 기간 무상 임차)하는 대신 NPO가 수리비를 부담하여 재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함
- 게스트하우스 등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흑자로 비영리 활동(빈집 상담, 지역 커뮤니티 정비) 비용을 충당하는 자립 모델 구축하고 개보수함
- 외관 개보수비용 지원(시 예산), 일본 유산(Japan Heritage) 보조금(500만엔 등), 크라우드 펀딩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함

□ 지역 사회 변화 및 이주 촉진

- 재생된 빈집에 예술가, 수공예 작가, 청년 창업자들이 입주하며 지역 거주민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둠
- NPO 자체적으로 약 20명의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가 이주자 출신임
- 오노미치 시립대학 예술학부 학생 및 타 지역 건축 전공 대학생들이 워크숍과 자원봉사 형태로 재생 과정에 참여함



업무협의 및 답사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답사 사진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아나고네도코(穴子のねどこ)



구 컨자야마 의원(산부인과) 건물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오노미치 대학 관계자, 지역단체 등이 함께 리모델링에 참여한 게스트하우스 마하라사테이 (등록문화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다스케바링크 LOG)

연회,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츠야엔 오히로마(大広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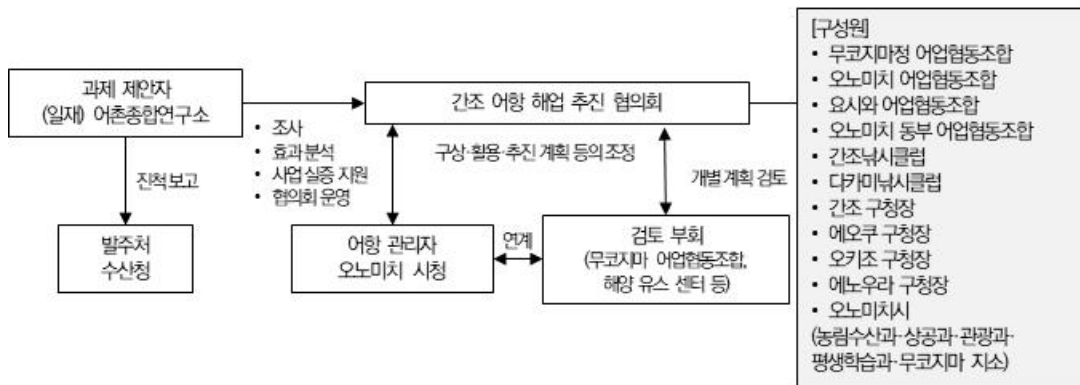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4) 오노미치시청 농림수산물과 면담

- 일 시 : 2026년 3월 17일(화) 16:00~18:00
- 장 소 : 오노미치시청 2층 면담실(1 Chome-15-1 Kubo, Onomichi, Hiroshima 722-8501 일본)
- 참석자 : (오노미치시청 산업부 수산물) 야마다(山田) 과장보좌 겸 수산진흥계장, 코야노 유스케(高屋 野 裕介) 주사 외 2인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오노미치시 유희어항시설 활용 및 최근 준비중인 민간참여 재생 프로젝트 등 논의

□ 수산청 '우미교(海業)' 모델 지구 선정 경과

- 2024년 일본 수산청은 전국 54개 지구를 '우미교' 추진 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오노미치시는 그 중에서도 보다 실증적인 추진이 가능한 전국 10대 중점 지구에 포함됨
 - 오노미치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 실적(U2, 사이클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됨
- 행정, 어업 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조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중임



사업추진체계

□ 어항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

- 수산청에 정식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어항 용지 내에서 우미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받아 사업 추진
- 기존 어항 부지의 민간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본 계획 승인 시 최대 30년까지 연장되어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짐
- 어업 전용 공간이었던 어항 부지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어업 외 목적 활용이 가능해짐

□ 주요 사업 구상 (조닝 및 시설)

- 육상 양식 시설, 숙박 시설, 직판장(수산물 판매), 다목적 시설 등을 포함한 5개 구역의 조닝

(Zoning) 구상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동시에 시작하기보다 직판장 등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

- 지역 어업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육상 양식 계획에 포함함

콘텐츠	사업개요	사업주체	시행시기
직매장·식당 시설	지역 및 인근 오노미치시등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생선 및 가공품 판매 「무코지마어류 판매팀」의 직판 코너 설치 육상 양식 시설 및 해면 양식 시설에서 수확된 수산물의 판매 및 가공, 관광·낚시터·양식 시설의 활어 활용 등 다양한 방안	민간기업 (협력 : 어업협동조합)	R7년도 이후
육상 양식 시설	양식업 종사자를 수용하여 육상 양식을 실시하고 직판장이나 식당과 연계하여 수확물을 판매·가공 직판장의사업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	지역 외 양식업자	R8년도 이후 시설 정비
관광 낚시터·양식시설	관광 낚시터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 증대. 직판장·식당·시설과의 연계 구축	민간 해상 낚시터 운영업체	R8년도 이후 시설 정비
숙박시설	도내외및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시설을 정비하여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해산물 및 농산물 제공을 통해 인바운드효과에 의한 지역 활성화 도모	민간 기업	R7년도 이후 시설 정비
다목적 시설	체험 학습 행사, 교육 여행 및 기업 연구 등 유지 인근 해양 스포츠 시설(해양 유스센터)과 연계한 해양 레저 안내 등을 수행하는 방문자 센터를 구축하여 수산업과 해양 홍보	민간 기업·오노미치시·어업협동조합 등	R8년도 이후 시설 정비

출처 : 오노미치 시청 내부 자료



오노미치 우미교 프로젝트 계획안

□ 민간 협력 및 운영 전략

-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 여름 조례 개정 이후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제약이 많아 사전협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일정은 2026년 3월 말에 수산청에 최종 활용 추진 계획을 제출 후, 2026년 6월 오노미치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2026년 여름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임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오노미치시청 농림수산과 업무협의

5) 오노미치세어 답사 및 운영자 면담

-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09:00~10:30
- 장 소 : 오노미치 세어 (일본 Hiroshima, Onomichi, 2 Chome-10-24 Tsuchido, Onomichi, Hiroshima 722-8501 일본)
- 참석자 : (오노미치시청 산업부 상공과) 카타시마 다이스케(片島大輔) 계장(과장 대리), 오노 카호(小野可湖) 주사
(오노미치세어 담당자: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교야 모토히로(元廣京哉)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오노미치 세어 추진 경위 및 시설 이주·정주시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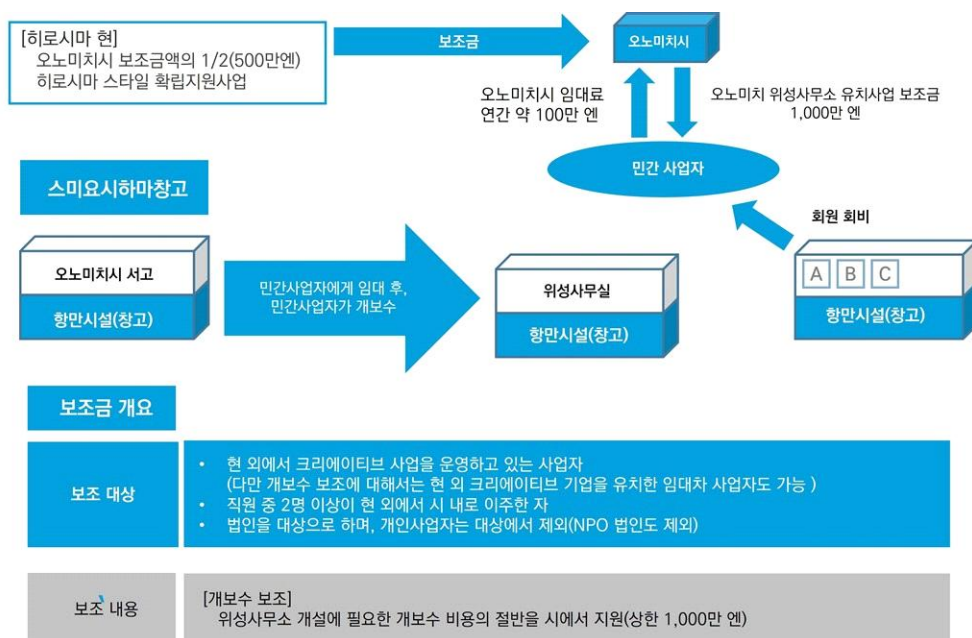
□ 오노미치시 산업 및 기업 현황

- 히로시마현 내 사업소 수 및 종업원 수 기준 5위의 상위권 도시이나,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8.6명으로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음

- 전통적인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비중 높음)과 더불어 액정 필름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닛토전공' 등 11개의 산업단지(약 100ha)가 가동 중임
- 강소기업(Number One/Only One)으로 건강식품(생강 가공 등), 이카텐(오징어 튀김 스낵), 굴 가공, 세탁 장비, 자동차 도장 건조 설비 분야에서 일본 내 점유율 1위인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음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의 유희시설 활용

- '오노미치 셰어(Onomichi Share)'는 2015년 1월, 시청 창고로 쓰이던 유희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창의적인 인재 유치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오픈한 코워킹형 셰어오피스임
 - 오노미치 셰어는 오노미치시가 실시한 '오노미치 위성 오피스 유치 사업' 공모형 제안서 공모에서 디스커버링 세토우치의 기획안이 채택·추진된 것으로, '정주 촉진'과 '고용 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
 - 오노미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뛰어난 조망권과 중심 시가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됨
 - 2014년 오노미치시 특성을 살린 유희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임대하는 형태로 진행함
- 운영 및 지원은 오노미치시와 히로시마현이 분담하고 민간사업자인 디스커버링크가 운영하고 있음
 - 오노미치시(市)가 시설 개보수 비용의 1/2(최대 1,000만 엔, 히로시마현과 시가 5:5 분담)을 보조함
 - 운영자는 히로시마 외부 크리에이터 사업자이거나 현과 링크가 가능하며, 오노미치시 이주 및 2명 현지근무를 조건으로, 인재가 왔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선정함
 - '디스커버링 세토우치'가 지불하는 연간 임대료는 약 100만 엔 수준임



오노미치셰어 운영체제

- 2025년 기준 법인 회원 2개사, 개인 회원 20명 외에도 연간 약 2,000명의 일일 사용자가 방문하며 위케이션 거점으로 활용되며 주로 30대 중심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직군이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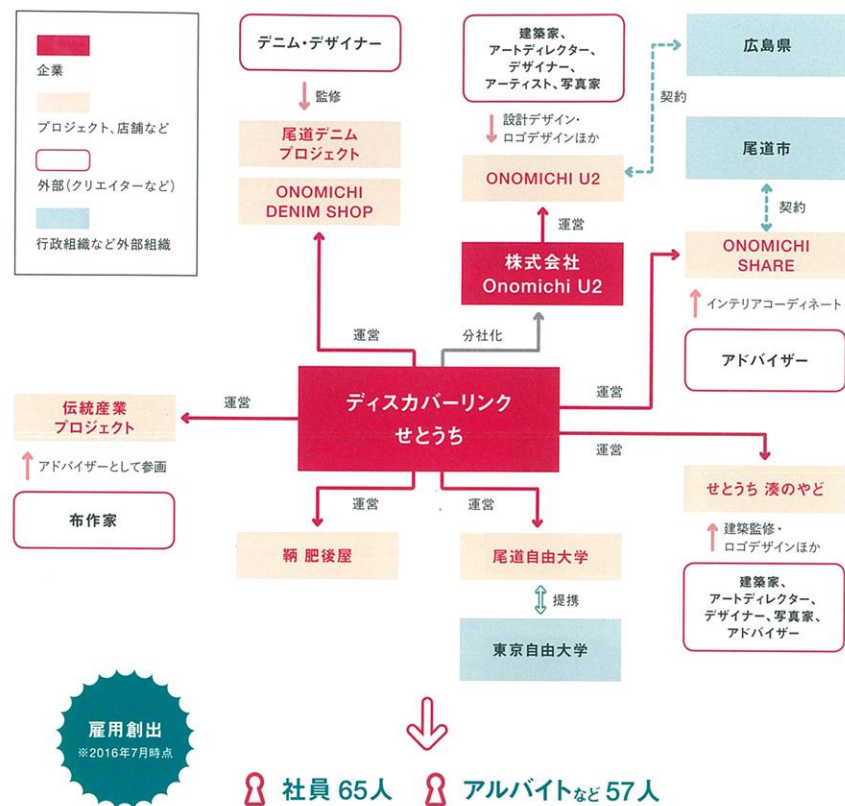
- 오노미치시 이주·정주 컨시어지 업무

- 오노미치시로 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지역과의 유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창구로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는 2023년 7월부터 ‘오노미치시 이주·정주 컨시어지 업무’의 수탁자로서, ONOMICHI SHARE 내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이주·정주 컨시어지 운영
- 오노미치의 주거·일자리·생활에 관한 상담은 물론, 각 보조금 제도에 관한 사항, 오노미치 시내 각 지원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과의 폭넓은 연결망을 활용 등에 대한 상담 지원
- 오노미치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레몬과 오징어 튀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 행사도 진행

-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라이프사이클 숍”

- 어디를 달려도 기분 좋고, 사이클링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오노미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희망하면서 BETTER BICYCLES을 운영
- 자전거 판매나 렌탈 자전거 등의 서비스에 더해, 자전거로 캠핑을 떠날 때 짐 꾸리기 체험이나 라이딩 장소에서 커피를 즐기기를 위한 도구 시연 등, ‘라이프사이클 숍’으로서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오노미치 세어 이외에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는 오노미치 데님을 제작하는 봉제기술 교육, 워크숍을 위한 후쿠야마 신이치초에 민박과 워크스페이스 운영, 2021년부터 데님 스쿨과 연계한 ‘SeW’을 운영하면서 1주일 체류, 1달 체류 등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 운영



디스커버링크 회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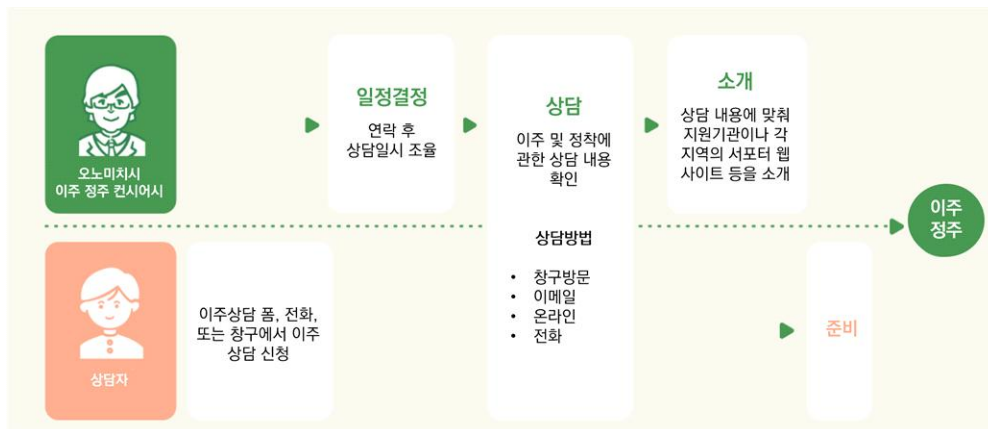
□ 이주·정주 및 창업 지원 정책

- 이주 홍보 및 안내는 디스커버리 링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주·정주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이주 전후의 상담, 지역 사업자와의 매칭,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함
- 연간 200건 이상의 창업 상담이 진행되며, 최근 외지인의 이주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 1인 창업자 등기 주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7개사가 주소로 활용중임
- 이주 시 이주지원금 및 창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U턴 사례도 늘고 있음
 - 도쿄권 등 외지 이주자 대상 지원금이 있으며, 창업 시 건물 개수비 50만 엔 보조 및 외지 이주자일 경우 20만 엔 추가 가산하여 지원함

[오노미치시 이주, 창업 등 지원제도]¹²⁾

- (이주 지원금) 이주 시, 이주 지원금 지급

지원 메뉴	주요 내용
이주 지원금	<p>도쿄권에서 오노미치시로 이주하여, 히로시마현 매칭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에 새로 취업한 사람이나 원격근무로 이주 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금을 지급</p> <p>[지급액] 1인 가구: 60만 엔 / 2인 이상 가족, 세대: 100만 엔</p> <p>※ 18세 미만의 세대원을 동반하여 이주하는 경우, 18세 미만 1인당 100만 엔을 추가 가산</p>



오노미치시 이주 상담 프로세스

출처: <https://iju-onomichi.com> (접속일자: 2026.03.07.)

- (주택 지원) 주택 리모델링 비용, 빈집 개보수, 처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원 메뉴	주요 내용
자녀 양육 가구 등 중 고주택 취득 지원 사업 보조금	<p>자녀 양육 가구나 젊은 부부 가구가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비용, 또는 구입, 상속, 증여 등으로 중 고주택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개보수)하는 비용의 일부(구입, 개보수 비용의 2분의 1)를 지원</p> <p>[지원 상한액] 시내 거주자: 30만 엔 / 시외에서 이주한 가구: 50만 엔</p> <p>※ 부모 세대와 동거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시내 거주자와 시외에서 이주한 가구 모두 10만 엔 추가 가산</p>
다세대 동거 등 신축 주택 취득 지원 사업	<p>자녀 양육 가구나 젊은 부부 가구가 부모 세대와 동거 또는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 [지급액] 정액 30만 엔</p>
빈집 재생 촉진 사업 보조금	<p>오노미치시의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중점 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보수하여 거주하는 경우,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최대 30만 엔)를 지원</p>
빈집 등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p>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 등을 거주 목적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필요 비용의 3분의 2(최대 30만 엔)를 지원</p>
빈집 가재도구 등 처분 지원 사업 보조금	<p>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의 가재도구 등의 처분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최대 20만 엔)을 지원</p>

- (창업, 시설 정비 지원) 창업 지원 보조금, 오피스 이전 장려금, 농지뱅크 등의 지원

지원 메뉴	주요 내용
창업 지원 보조금/ 개업 지원 보조금	시내에서 새로 창업하는 사람 또는 히로시마현 외에서 이주해 시내에 새로 사업체를 개설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에 사용하는 임차 건물의 개보수, 수선 비용의 2분의 1 (최대 50만 엔)을 지원. 또한, 보조금 대상자가 39세 이하의 히로시마현 외 이주자일 경우, 20만 엔을 추가 지급
창업 자금 이자 보전 제도	신규 창업자가 부담한 창업 자금의 이자 상당액을 2년간 보조 (연간 최대 30만 엔)
오피스 이전 촉진 장 려금	오노미치 시내로 본사 기능을 이전, 분산하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최대 250만 엔)
신규 어업 취업자 육 성/어선, 어구 등 정 비 사업	새롭게 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어선, 어구 구입 비용의 2분의 1(최대 90만 엔)을 지원
오노미치 “농업” 인 재 종합 지원 사업	농업 종사자 감소, 고령화, 후계자 부족, 경작 포기지 증가, 수익성 저하 등 어려운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인 신규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 농업 단체의 노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신규 취농자 경영 안정 지원 사업 - 농업 경영 고도화 지원 사업 - 산지 구조 개혁 지원 사업
농지 뱅크 제도	농지를 임대, 매도하고 싶은 소유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또는 경영 규모 확대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희망 조건에 맞는 농지가 등록되면 소유자를 소개하는 제도
빈집 개보수 (신규 창업) 지원 사업 보 조금	빈집 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취득하여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 사업체 개설을 위한 개보수 비용의 3분의 2 (최대 30만 엔)을 지원



오노미치시 상공과 및 오노미치셰어 운영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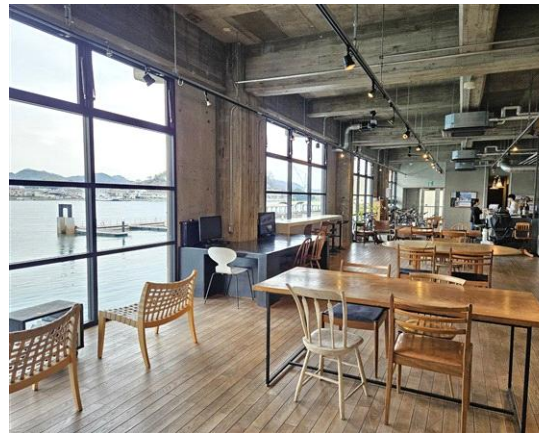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12) <https://www.city.onomichi.hiroshima.jp/soshiki/2/61864.html>, <https://iju-onomichi.com/>(접속일자: 2026.03.12.)

□ 시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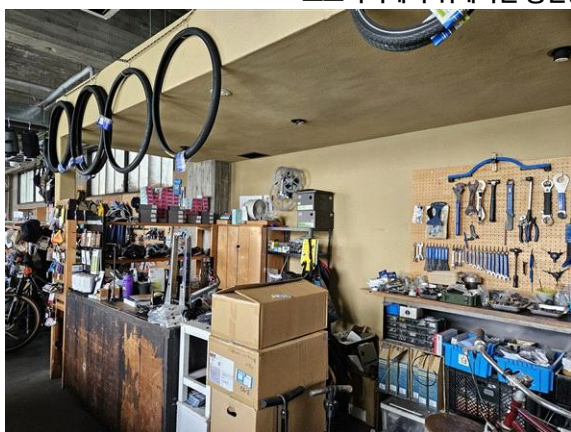
오노미치셰어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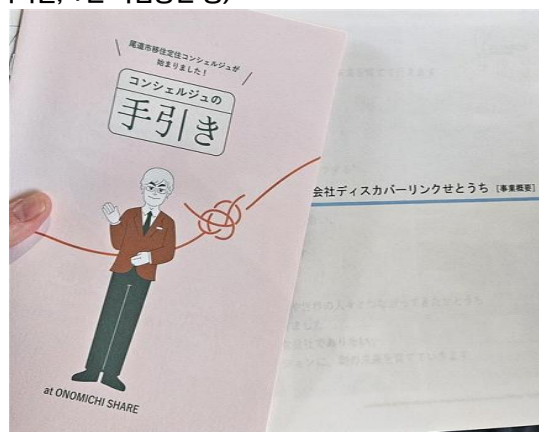
오노미치셰어 워케이션공간



오노미치셰어 워케이션 공간(회의실, 1인 작업공간 등)



오노미치셰어 내 자전거용품 판매공간



오노미치시 이주 지원 안내자료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2. 청년이주 및 지역고용 촉진을 통한 어촌재생 사례: 아와지섬

1) 아와지 특정만들기 사업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¹³⁾¹⁴⁾

□ 특정지역 만들기사업(2020.06.04.)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2020.06.04.)에 근거
 - (대상단체)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협동조합 신청 예정 단체
 - (보조대상)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용
 - ※ (경비예시) 정관·사업계획 수립비, 인가·신청절차비용, 사무실 개·보수비 및 설비 경비
 - ※ (대상외경비) 설립 인증 후 조합운영 비용, 기초 파견비(인건비)
 - (보조율/기간) 도(현)1/4(상한액 500천엔), 시·군 3/4(의무동반) / 1년
 - (보조요건) 시·군·주도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 대상, 조합설립과 관련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진행 이후 설립요건이 확인(예정)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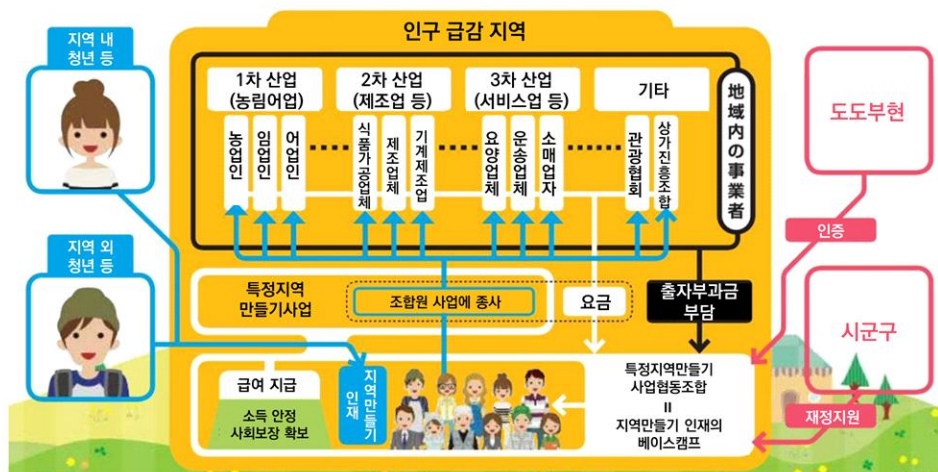


- (주요 내용) 협동조합에서 인재를 고용해 지역 내 기업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생성
 - 2022년 지역 내 사업자(5개 기업)이 협력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에서는 청년이나 이주자를 모집·고용하여 여러 업종의 일을 조합한 ‘멀티워커’로 파견시켜 고용 창출 문제에 대응
 - ※ 참여기업은 (주)모리수산(아와지섬에서 잡은 해산물을 가공·판매), (주)이자나미(특산품개발·판매 및 식당업), (주)고씨(히로시마 특산 양파 등 농작물 생산·판매), (주)오키물산(일본 및 해외 수입 농·수산물 식재료 브랜딩 및 판매), (주)URA(식음료 사업 및 로컬 레스토랑 운영)
 - ※ 본래 이 5개 기업은 2010년에 아와지섬과 도시 간 협업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NPO법인 소속 기업의 일원으로서, 아와지섬 활성화 추진 위원회 회원 기업임
 - (멀티워커) 멀티워커(계절별로 다양한 일을 조합)로 연간 고용을 창출
 - ※ (예) 4~6월:농업, 7~9월:관광업, 10~12월:수산 가공업, 1~3월:스키장

13) <https://smout.jp/plans/12421>(접속일자: 2026.02.10.)

14) https://www.shokokai.or.jp/shokokai/pdf/202406/26-29_%E5%95%866_%E7%89%B9%E9%9B%86_%E6%A3%AE%E6%B0%B4%E7%94%A3@%E6%B7%A1%E8%B7%AF%E5%B8%82.pdf / <https://smout.jp/plans/8864>(접속일자: 2026.03.05.)

- 업종에 따라 바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근로자)는 시기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기업을 변경하며 체험 가능하며, 이용자는 곧 멀티워커로서 여러 체험 근무를 경험하여 1년 후 스스로 취업 기업을 선택하는 구조
- (홍보) 인재 매칭 회사와의 제휴 및 지역 이주 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용자를 성공적으로 확보
 - 5개의 회사의 법인(협동조합) 설립 이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기존 NPO법인이었던 아와지섬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원 기업이면서, 도쿄에 본사를 둔 인재 파견회사와 제휴
 - ※ 기존 회사에서 관서권을 중심홍보에서 SNS를 주된 매체로 삼아 전국 규모로 확대
 - 이후 관동 지역에서 접근이 늘어나며, 2020년 대형 인재 파견 회사(Pasona그룹)가 본사의 아와지섬 이전과 지역 이주 매칭 사이트인 'smout' 홍보로 관심도 급증
 - ※ 파소나 창업자 난부 야스유키 대표가 고베 출신으로 지역활성화 의지가 강했으며, 2020년 이주 발표 이후 아와지섬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시설을 도입으로 새로운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이 연이어 오픈하면서 홍보가 확대
 - ※ 농·어업 이외에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사업군 존재 및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
 - ※ 2023년 기후현 청년 1명 이주, 2024년 3인 이주 후 협동조합 내 기업 취직
- (운영) 아와지시마 이주 프로젝트(淡路島移住プロジェクト)의 일환으로, 아와지시에서만 할 수 있는 직업 및 휴식체험을 제공하여 외부 인재를 확보하여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
 - 5개의 지역 기업(농·수산업, 식품제조업 등) 중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며 1년간 일을 할 수 있는 '멀티워커'제도를 운영(월급 (20만엔), 집세 수당(월 3만엔) 지원(혹은 사택 지원) 및 차량 지원(교통비 상한 2만엔) 및 기존 조합원들의 다방면 거주 지원(2026년 기준))
 - 현재는 4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농·수산업 이외의 식당에서도 근무 가능



지역창생국. '지역 재생大作전' 제도 개요서(2022) 내 멀티워커 다이어그램 번역

2) 아와지섬 지방창생 세미나

- 일 시 : 2024년 6월 19일(월) 15:00~18:00
- 장 소 : 아와지섬 노지마 스코라(843 Nojimahikinoura, Awaji, Hyogo 656-1721 일본)
- 참석자 : (파소나 그룹 사업개발본부 마케팅팀) 와타베 야스노리(渡部泰徳) 부장, 카키모토 나오(垣本直) 수석 매니저, 후지모토 마리(藤本茉莉) 사원 외 2인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아와지섬 지역고용창출 관련 사업 및 특정지역만들기사업 추진현황, 성과 파악

□ 파소나 그룹의 기업 철학 및 지방창생 배경

- 파소나 그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됨
 - 회장이 학생시절 학원을 운영하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일하고 싶은” 주부들을 만나게 되면서 대학 졸업 전에 인재 파견회사를 1976년 창업함
 - 인재파견과 비즈니스프로세스 오퍼레이션(BPO), 청소관리업, 해외 인재 소개와 관광솔루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현재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건강을 만드는 “웰빙(Well-being) 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효고현 아와지시마를 비롯해 도호쿠, 교토고, 오카야마 등 일본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사업¹⁵⁾을 전개
- 파소나의 지방창생사업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지역고용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도쿄로의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 1996년 4월 고베 하버서커스 백화점을 오픈하고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부흥을 달성한 바 있음
 - 1998년 4대 증권사 도산 및 취업을 저조, 농업종사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농업 고용창출 및 효고현 농지를 빌려 “농업 인턴십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함
 - 2008년, 일본 농업의 활성화와 독립 영농 지원을 위해 “파소나 챌린지 팜 in 아와지”를 시작하고, 이후 다수의 외식·관광 시설 운영, 다양한 이벤트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 유치”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지방창생 사업을 추진함
 - 2011년 1년간 사람을 고용해서 반농반예를 하게 하여 3년간 300명이 일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 아와지섬은 창업자의 고향이자 온화한 기후, 풍부한 식자재, 인근 대도시(오사카, 고베)와의 인접성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상지로 선정하게 됨

15) ①관광, 투어리즘 사업, ②웰니스 리트리트 사업, ③어그리컬처 사업, ④아트, 컬처/엔터테인먼트 사업, ⑤교육 커뮤니티 사업

- 아와지섬의 장점은 ①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좋아 태양열이 많음(식량자급률 100% 이상), ②육로로 접근 가능한 지방공항 4개가 있고 오사카, 고베 등 주요도시가 근처에 있어 입지가 좋음, ③직선 36km 이내에 오사카 박람회, 카지노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음 등이 있음
- 지방창생 7가지 요소(①테마파크, ②좋은 자연환경, ③일자리, ④건강한 장소, ⑤교육 장소 제공, ⑦문화를 발산하는 곳(우크라이나 발레단이 와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발레공연을 볼 수 있음)를 바탕으로 아와지 지역을 면적 개념으로 보고, 지방창생, 오피스 등을 운영함
- 2020년부터 도쿄 본사의 관리 부문(인사 등)을 아와지섬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300명의 직원이 이주하고 총 2,000명의 직원이 섬 내에서 근무 중임

□ 아와지섬 주요 프로젝트 및 시설 운영

- 노지마 스코라 (Nojima Scuola)는 2010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대여 및 매입하여 레스토랑, 마르세, 동물원 등으로 재생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 학교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함
 - 기존 교실 구조와 복도, 계단 등 학교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내장과 설비만 상업용으로 개조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1층은 노지마 베이커리·마르세·카페, 2층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3층은 BBQ공간·워크숍/이벤트실로 재편해 층별로 다른 체류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성함
 - “식(食), 농(農), 학(學), 예(芸)”를 테마로 시설 내에는 마르세(지역 특산물 숭), 카페, 레스토랑, 동물원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도 참가하는 축제, 정기적인 합창 교실 등 지역 교류 거점으로서도 주목하고 있음
 - 폐교를 “지역자원·지역기억의 상징”으로 보고 철거하는 대신 민간기업(파소나) 유치를 통해 복합 거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폐교 활용·기업유치 전략이 핵심임¹⁶⁾
- 니지겐노모리(이차원의 숲)는 애니메이션(나루토, 고질라 등) 콘텐츠와 기술, 자연을 융합한 테마파크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함
- 아와지 셰프 가든은 아와지섬 해안 유희부지에 컨테이너형 레스토랑을 모아 만든 야외 푸드 코트·테라스 단지로, 각 레스토랑이 개별 컨테이너를 활용해 구축되어, 소규모 점포를 쉽게 입점·철수할 수 있는 팝업형 구조임¹⁷⁾
 - 2021년 동해안 측에서 시작된 1차 ‘Awaji Chef’s Garden’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셰프·식음업자를 초청해, 새로운 장소에서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운영한 후, 해당 컨테이너들을 서해안 경관이 뛰어난 해안부지로 옮겨 “Awaji Chef’s Garden by PASONA”로 업그레이드해 재개장함으로써, 미식과 경관, 셰프 지원, 지역관계 인구 창출을 결합해 운영함
- 기타 시설로는 헬로키티 스마일(기네스 보유), 젠보 세이네이(리트리트 시설), 그랑 샤리오(고급 글램핑장) 등 점(點)이 아닌 면(面) 단위의 개발이 진행됨

16)

<https://www.komei.or.jp/km/gyota/2019/08/21/%E8%A6%96%E5%AF%9F%E3%80%80%E6%B7%A1%E8%B7%AF%E5%B3%B6/>(접속일자: 2026.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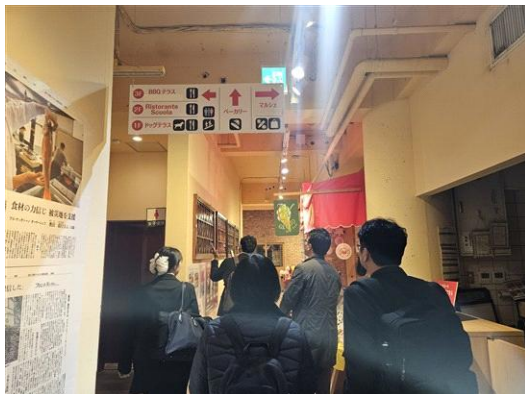
17) <https://kor.awajishima-resort.com/shop/awaji-chef-garden/>(접속일자: 2026.02.10.)

□ 지속 가능한 어촌 및 농촌 활성화 전략

- 농업을 기반으로 가공, 유통,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함
- 토지마스코라(폐교) 공간을 활용해 섬 내 40여 개 식당에 공급할 소스, 카레 등을 대량 생산하며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폐교한 토시마 초등학교를 리노베이션하여 웰빙 분야의 인재 육성, 고용 창출을 목표로 2024년 7월 토시마 스코라를 개설함
 - 신입 요리사들이 주 5일 중 4일은 현장 근무, 1일은 교육을 받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아와지 셰프 스코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로 후는 차세대를 짊어질 지방 창생 요리인으로 여러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지원함¹⁸⁾
- 식재료의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 원칙을 고수하며, 누적 약 100억 엔 이상의 지역 경제 기여액을 달성함

□ 사업 모델 및 향후 계획

- 지자체 보조금 없이 민간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민간 주도형' 모델임
-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사람이 올 만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웰빙(Well-being) 산업 창조를 통해 2030년 매출 규모를 현재 70억 엔에서 200억 엔으로 확대하고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함.



파소나 그룹 인터뷰 및 주요시설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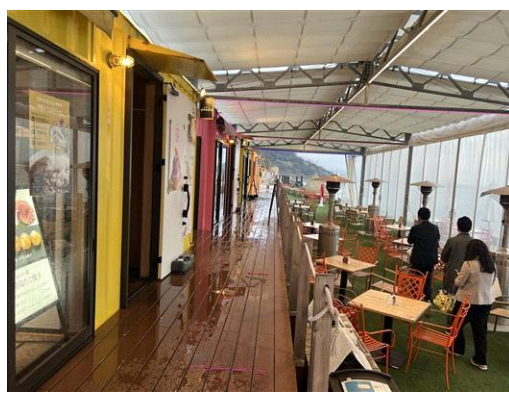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18) <https://www.pasonagroup.co.jp/news/tabid312.html?itemid=5143&dispmid=821>(접속일자: 2026.03.10.)

□ 답사 사진



폐교 공간을 활용한 노자마스코라



인재 육성에 활용되는 토사마스코라

아와지 셰프가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식당으로 활용되는 CRAFT CIRCUS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3.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 사례: 카미카츠초

-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13:00~17:00
- 장 소 : 카미카츠초 판게아 필드(Kawakita-4 Fukuhara, Kamikatsu, Katsuura District, Tokushima 771-4501 일본)
- 참석자 : (합동회사 판게아) 노노야마 사토시(野久山聡) 대표 외 4인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카미카츠초 나뭇잎 비즈니스, 제로 웨이스트센터 등 지자체 주민 주도 관련 사업 내용

□ 카미카츠초 일반 현황 및 인구 구조

- 카미카츠초는 도쿠시마현 중부 카츠우라강변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가쓰우라군에 속해있음
 - 도쿠시마 남서쪽에 위치하며, 운조산을 최고봉으로 한 산악지대로서, 도쿠시마현 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日本で最も美しい村連合)’에 속해있는 유일한 지자체
 - 2026년 3월 기준 인구 1,284명, 695세대로, 지난 15년 사이 인구가 약 700명 감소하였으며, 연간 약 70명이 사망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가 53%로 일본 평균 고령화율(28%)의 약 2배에 달함
- 전체 면적의 88%가 임야로, 평지가 거의 없는 급경사지 지형의 산촌마을임

[카미카츠초 지역창생 종합전략(제3기 2025~2029)]¹⁹⁾

- 기본목표 1: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기
 - 이로도리사업을 활용한 산업진흥 및 농림수산업의 신규 취업자 촉진, 상공업 진흥
 - 인구유출(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まち・ひと・しごと創生)”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용을 뒷받침하는 산업(농림수산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롭게 지역 내에서 창업하려는 인재 지원 등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 2022년에 설립된 “가미카쓰 사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고용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이로도리 농업과 이로도리 관련 산업, 환경 정책, SDGs 등과 관련된 단체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새로운 시대 흐름을 동력으로 한 지역 산업의 발전을 지향
- 기본목표 2: 지역에 새로운 인구 흐름 만들기
 - 제로 웨이스트를 활용한 순환형 마을 만들기 추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과 체험형 교류의 촉진, 관계 인구의 창출과 확대 등
 - 지역 브랜드인 “제로 웨이스트” 추진과 “이로도리 농업”,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찰 및 체험 방문자,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벤트와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 인바운드 방문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 인구”의 창출, 확대 목표
 - 생활 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참가자, 수학여행단 등의 수용과 게스트하우스 및 농가 민박 등을 통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해 마을의 풍부한 자연, 식재료, 아름다운 농촌 경관과 같은 지역 자원은 물론 사람들의 따뜻함과 사람 간의 유대감을 직접 체감 → 지역 공동체의 유지,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주 의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
 - 또한 이주 상담 창구 및 정보 발신 기능을 강화하여, “제로 웨이스트”를 비롯한 카미카츠초의 다양한 노력

에 공감하는 기업과의 연계, 분산형 업무 거점 (사태라이트 오피스) 및 창업자 유치, 지역으로의 U·I·J턴 촉진도 적극적으로 추진

- 기본목표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희망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만들기
 - 젊은 층의 취직 지원과 후계자 육성, 결혼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지원이 필요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고용)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희망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통해 개인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결혼 지원, 양육 지원, 교육 지원의 충실화를 도모
 - 또한 환경 오염이 적고 자연이 풍부한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환경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양육 가정은 물론 도시 등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양육가정에게도 카미카츠초가 매력적인 마을이 되도록 한층 더 강화 필요
 - 아울러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누구나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도모
- 기본목표 4: 지속가능한 살기 편한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제로 웨이스트 시책 추진, 재생가능 에너지 추진, 빈집 등 대책
 -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은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과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요. 도로 정비는 물론 주거 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보건, 의료, 요양, 복지의 강화, SDGs 추진, 그리고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기술의 활용, 촉진을 도모
 - 이를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사회의 실현을 추진
 - 또한 주민이 자부심과 삶의 보람, 행복감을 느끼며 즐거움이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건강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세대 간 교류와 상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활기차게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실현 도모

[카미카츠초 이주 정착 지원]

- 이주, 정착 지원²⁰⁾
 - (카미카츠초 아동 등 전입 지원금)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아이를 동반하여 가미카츠초에 전입한 세대로 자녀가 카미카츠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5년 이상 재학이 예상되는 경우 세대 당 30만엔 지급
 - 신축 주택 공사비, 중고 주택 구입 보조금
 - (빈집 개보수 보조금) 가미카츠초가 빈집 소유자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 체결, 이후 빈집 내부 개보수와 입주자 모집활동, 입주 후 관리 비용 모두를 부담 (2021년도)
 - (주택 제공) 빈집을 카미카츠초가 직접 빌려 개보수하고, 이주자에게 빌려주는 사업(2022년 4월부터 입주자 모집)
- 이주체험을 위한 셰어하우스 제공²¹⁾
 - 이주희망자를 위해 빈집을 개조한 단기·장기체험주택으로, 월 400엔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1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중기형 주택으로 운영되며, 2021년부터 마을 빈집소유자와 직접 임대계약을 맺고 개조한 뒤 이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단기) 최소 1일~최대 1달간, 1박에 400엔으로 이용 가능, 총 7개의 방으로 구성
 - (장기) 1달 이상~최대 1년, 가족을 위한 쿠루쿠루 하우스 (월 6만 엔), 1인 거주자를 위한 원룸(월 1만 5천 엔)

シェアハウス1棟 間取り図



단기 체류(1개월) 체험시설로 활용되는 셰어하우스

장기 체류시설 셰어하우스

출처: <https://kamikatsu.jp/shortstay/> (접속일자: 2026.02.11.)

19) http://www.kamikatsu.jp/docs/2025040300017/file_contents/sougousennryaku3.pdf (접속일자: 2026.03.10.)

- 다양한 주택 정보 제공²²⁾
 - 복합주택, 공유주택, 단독주택 등의 정보를 각 주택별 입주조건과 함께 온라인에서 제공
- 이로도리 사업 등 농업연수²³⁾
 - (이주 농업인 모집) 2~3년간 월 16~18만엔의 농작업(이로도리 사업 등 농업 관리·출하) 직원을 모집하고, 이주체험시설과 동영 주택 등을 무료로 제공
 - (시험 농업 체험) 단기(1박 2일~1달)로 농작업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하며, 참가비와 체험 중 숙박비(연수자용 기숙사 제공) 무료로 제공



다양한 이주 주택 소개 페이지

출처: https://kamipara.jp/house/town_house/ (접속일자: 2026.04.09.)

□ 나뭇잎 비즈니스(이로도리) 사례

- 1998년 농협 직원의 아이디어로 일본 고급요리점의 장식용 잎새(쓰마모노) 판매 사업을 시작
 - 한파로 지역 주력 작물인 감귤나무가 전멸하자, 당시 농협 직원이던 요코이시(横石) 사장이 고급 요리점에서 쓰이는 장식용 잎새(쓰마모노)의 가치에 주목하여 사업을 시작함
 - 136개의 농가가 장식용 잎새를 생산하고, 농협(JA)의 주문, 물류, 주식회사 '이로도리'가 마케팅하는 형태로 운영함
- 고령자 중심 산업으로 게임 요소와 고수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업으로 운영함
 - 1998년부터 컴퓨터를 도입하고, 현재 고령의 주민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문 정보를 확인하고 '선착순'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게임적 요소를 도입함
 - 잎새는 가벼워 고령자나 여성이 채취 및 선별하기 수월하고 노동 강도 낮아 고령자 일거리로 적합한 사업
 - 연간 매출 약 3억 1천만 엔 규모로 최고 수익을 올리는 80대 여성 농민의 경우 연간 약 2,200만 엔(한화 약 2억 원 이상)을 벌기도 함
 - 생산자 평균연령이 75세, 최고령이 100세로 삶의 보람과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자 일자리임
 - 320종 상품을 생산하며, 품질 중심 시장 전략으로 운영함
- 묘목 구입비의 70%를 행정이 보조하며, 신규 후계자 양성을 위해 2년간의 연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함

20) <https://iju.pref.tokushima.lg.jp/about/kamikatsu/> (접속일자: 2026.03.10.)

21) <https://kamipara.jp/shortstay> (접속일자: 2026.04.09.)

22) <https://kamipara.jp/housing/> (접속일자: 2026.04.09.)

23) <https://irodori.co.jp/> (접속일자: 2026.03.07.)

- 농가수가 2011년 180개에서 현재 136개로 감소하고 있어 연수교육 및 창업지원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를 발굴하고 있음



(주)이로도리 카미카초 네트워크

출처: <https://irodori.co.jp/>(접속일자: 2026.03.07.)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활동 및 센터 운영

- 카미카초는 1997년까지는 노천 소각을 했으나 법적 규제(다이옥신)와 소각 비용 부담(연간 3,120만 엔)이 커지자, 비용 절감과 자원 순환을 위해 2003년 '제로 웨이스트'를 선언함
- 현재 43종 분리수거와 81.1%의 재활용률을 통해 처리 비용을 절감함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4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배출하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종이, 금속 등을 매각(수입 180만 엔)함
 - 이를 통해 연간 실질 처리 비용을 과거의 약 4분의 1 수준인 570만 엔으로 대폭 절감함
- 지형적 특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쓰레기 수거차가 운행되지 않으며, 주민들이 직접 센터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으로 함
- 2003년 제로웨이스트 선언(2003~2020)에 이어 2020년 2단계 선언을 함
 - 2030년까지 환경문제 리더 배출과 개인의 노력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역(고무, 복합소재, 위생용품 등)은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비자 책임에서 생산자 책임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제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선언함
- 제로웨이스트 센터(2020년 완공)는 '물음표(?)' 모양으로 설계된 복합 시설로, 쓰레기 스테이션 외에도 재활용 숭(쿠루쿠루 숭), 호텔, 기업 협업 공간을 포함함
 - 2020년 4월, 구 쓰레기 스테이션을 리뉴얼한 가미가초 제로 웨이스트 센터 오픈
 - 위에서 보면 시설 전체가 물음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가져와 13종류(대분류), 43개(소분류)로 분리배출 (2024년부터)하여 재활용율 80% 수준 달성
 - 건물은 2020년 5월 마을 주민들이 쓰던 창호와 폐자재를 조합하여 “?” 모양의 제로 웨이

스트 센터 건립하여, 제로웨이스트 브랜드 거점 및 체류형 관광·코워킹 등을 실행수단으로 활용

- 지역 내 쓰레기 수집을 위한 쓰레기차는 없으나 운반을 돕는 운반 지원은 있으며, 시설 내 버리기는 아까운,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전시하는 쿠루쿠루 숭이 있음
-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회수 프로그램(사회공헌 활동에 의한 회수)에 지역 주민이 참가

□ 카미카츠초 1Q 운동회

- 마을 활성화를 위해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경쟁을 추진함
- 마을장과 사무국, 각 지역별 1Q를 구성하여 임기 2년간 자율적으로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 (예시: 버스정류장 개선)



카미카츠초 행정 시찰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제로웨이스트 현장 조사



제로웨이스트 외관



제로웨이스트센터 내부공간 (재활용 숭 등)



제로웨이스트센터 기업 협업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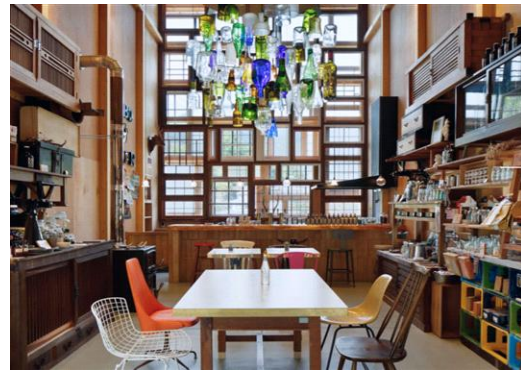


제로웨이스트센터 숙박공간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크래프트 비어샵 RISE & WIN(RISE & WIN Brewing Co. BBQ & General Store)

- WHY센터에서 차로 5분거리에 위치한 브랜드로서, WHY센터와 같은 건축가인 나카무라 히로시가 설계
 - 폐자재로 지은 멋진 건물로 인해 젊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마을 이미지 개선에 일조
- (운영) 상품가치가 떨어져버린 과일 등을 원료로 하여 맥주를 만들고, 맥주를 살 때 본인이 가져온 병에 담아가는 리필시스템 운영
 - 맥주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전달하고 캠핑카(KAMIKATZ Rolling Room)를 통한 1일 1조 숙박을 체험하고, WHY센터 내 호텔을 운영



RISE & WIN Brewing Co. BBQ & General Store 외부와 내부(출처: <https://www.kamikatz.jp/>)



RISE & WIN Brewing Co. BBQ & General Store 전면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캠핑카(KAMIKATZ Rolling Room)

4. 전통마을 경관보존을 통한 관광특화 어촌만들기 사례: 이네초

-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1:00~12:00
- 장 소 : 이네초 관광안내소(491 Hirata, Ine, Yoza District, Kyoto 626-0423 일본)
- 참석자 : (이네초 관광협회) 요시다 아카히코(吉田晃彦) 사무국장, (후나야 관광교류시설 후나야비요리) 미츠노 나루히코(三野成彦)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윤용식 사무관, (어촌어항공단) 유한석 과장
(AURI)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방보람 부연구위원
- 내 용 : 이네초 후나야 보존 및 지자체 사례 인터뷰

□ 이네초 후나야의 보존 및 경관관리 사항

- 이네초 후나야 밀집지역은 경관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외관 수리 기준과 보조금 지원
 - 이네초는 조수간만차가 적어 후나야 가옥이 200채 이상 밀집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임
 - 후나야는 과거 선박 보관 및 작업공간으로 썼으며, 기존 용도가 변화되는 추세임
 - 이네초 전체가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목조 건축 양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적 개보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외관 수리 시 최대 60% 보조금을 지급함
- 과거 어업공간이었던 후나야는 현재 민박, 카페 등 관광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과거 3세대가 거주한 주거로 1층 해안가는 목조로 만든 선박을 건조·보관하고, 뒤쪽과 2층은 주거로 사용하였으나, 도로 확장에 의해 분리하게 됨 (주 통과도로도 변경됨)
 - 현재는 어업인구 감소 및 산업 변화로 빈 공간을 민박, 카페 등의 수익시설로 전환하여 쓰고 있으며, 화재 등을 대비하여 숙박-식사는 분리하고 있음

[이네초 후나야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²⁴⁾

- 2005년 7월 22일, "이네초 후나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가 문화청에 등록
 - 일본에서 어촌으로는 처음으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건물뿐만 아니라 이네만을 포함한 뒷산의 능선까지 포함해 보존 범위로 설정
- 1945년 이전과 이후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매년 6~7건의 수리 실시 중
 - 1945년 이전 건축물 수리 시 80%의 보조금(주택 최대 800만엔, 후나야 최대 500만엔)
 - 1945년 이후 건축물 수리 시 60%의 보조금(유형 규모에 따라 300~600만엔)

- 이네노 후나야 미야비 별저 (伊根の舟屋 雅 別邸)
 - 2023년 3월에 아부라야 그룹에 의해 오픈
 - 후나야와 창고 등 오래된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한 총 7동 9실 규모의 숙박, 음식점 등 운영

24) <https://www.zck.or.jp/site/forum/1127.html> (접속일자: 2026.03.05.)

<https://www.town.ine.kyoto.jp/material/files/group/8/matiR6.pdf>(접속일자: 2026.03.05.)



이네노 후나야 미야비의 외관과 객실 모습

출처: <https://www.ine-aburaya.com/miyabi-bettei/> (접속일자: 2026.03.07.)

• FUNAYA KAJIYA 神慈や25)

- 167년된 오래된 민가인 구 무카이 가(向井家)를 레스토랑으로 리노베이션하여 2024년 3월에 오픈
- 이네만의 신선한 수산물과 현지 생산 야채들을 사용한 음식으로 어업과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고용 창출과 지역 진흥을 목표로 함



FUNAYA KAJIYA의 모습

출처: <https://www.ine-kankou.jp/taste/funaya-kajiya> (접속일자: 2026.03.07.)

□ 이네초 이주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항

-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빈집뱅크 운영 및 3개월 단기거주가 가능한 시험주택(오타메시 주택)을 제공하고, 이주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택 개수 보조금 최대 200만엔을 지급함
 - 신규 창업자에게 2년간 매월 10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역주민 단체의 시설 운영 등 지역민 일자리 및 창업·운영 지원
 - 관광객 급증(연간 50만명)에 따라 외부 자본이 들어와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카페나 식당을 경영하도록 장려함
 - 후나야 숙박 등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주차장 안내판 등 주민 생활 개선에 쓰임

25) <https://www.prdesse.com/posts/view/20909> (접속일자: 2026.03.07.)

- 후나야비요리(舟屋日和)는 주유소, 숙박업, 요리사 등의 직업을 가진 지역주민 3명이 만든 조직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직영관리자로 선정되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물을 짓고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네초 이주 정착 지원]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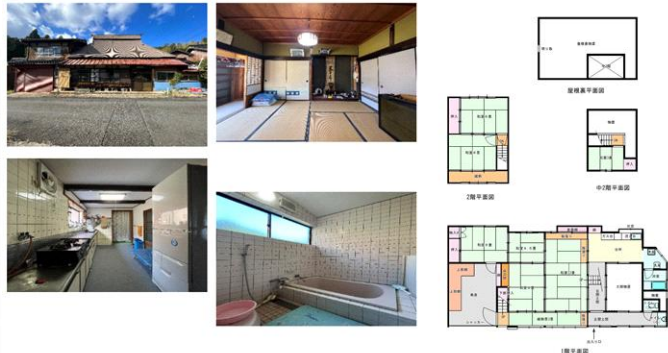
• 이네초 빈집뱅크

- 이네초 내 빈집 활용을 위해 빈집 정보 등록 제도인 빈집뱅크를 개설하여 운영함
- 이네초 내 빈집이나 빈 터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이네초 내에 살고 싶거나 빈집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여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함



빈집뱅크 홈페이지

物件番号	B-0010
種類	住宅
所在地	伊根町大字
所有権者	建設費120万円
床面積	1階：10.87㎡(3.27坪) 2階：不詳 土積：104.58坪(3.45アール)
構造	木造
建物の要・不要	多少の修繕が必要
建物の費用負担	入居者負担
間取り	1階：6号机、風呂、トイレ、炊事12畳、6畳+2、4.5畳 2階：4号机、風呂、トイレ 3階：10畳+8畳+2、不詳
設備	電気(日本産のみ)、ガス(プロパンガス)、風呂(日立)、水道(管線未通)、トイレ(水洗)、暖房あり、暖房なし
主要施設への距離	バス(伊根3号ローマール)駅(徒歩2分)、伊根町(徒歩10分)、伊根町(徒歩10分)、伊根町(徒歩10分)、伊根町(徒歩10分)、伊根町(徒歩10分)
所有権者のコメント	物件は入居者負担で修繕または修繕費を要する場合があります。 【伊根町役場】 伊根町役場 建設課 (連絡先：0772-45-1111)



빈집뱅크 운영 구조

빈집 정보 제공 예시

출처: <https://www.town.ine.kyoto.jp/soshiki/kikakukanko/2/6/1/index.html> (접속일자: 2026.04.09.)

• 주거 지원

- (정주 촉진 보조금) 주택 신축, 구입, 증축 비용 등에 대해 일부 보조
- (이주 촉진 공사 개보수 보조금) 빈집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의 개보수 시 1호당 180만엔 이내 보조
- (정주촉진주택) 40세 미만 1인가구 정주지원 목적의 임대 주택 공급(월 2만엔~3만5천엔, 집세 3개월 분)
- (동영 주택)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월 1만6천엔~3만엔, 집세 3개월 분)
- (특정 공공임대주택) 중견소득자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월 3만 9천엔~5만엔, 3개월분)

• 고용창출

- (실천 농장 및 취년취농금부금) 야채 등을 재배하고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2년간 연수와 농지를 대여, 실천농장에서의 2년 연수 기간 동안 150만엔 보조, 농업 종사자가 된 후 최장 5년간 연간 150만엔 보조
- (해안 어업 개선 자금) 어선, 기기, 시설 등 구입 자금 대환
- (신규 어업 취업자 급여금) 새롭게 개인 어업 시작한 자에게 연간 150만엔 보조

- (어업 경영 개시 지원금) 개인 어업 시작 시, 어선, 어구 경비 지원(최대 300만엔)
- (개업 지원금) 이네초 내 관광업 등 개업 시 지원
- (상공 관광업 진흥 대책 사업 보조) 점포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중 10분의 3 이내 보조(상한 300만엔)

• 체험형 주택 제공

- 이네초 인구 유입 및 이주 촉진을 위해 이네초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단기 체험 주택 제공



체험형 주택의 외관 및 주방

출처: <https://www.town.ine.kyoto.jp/soshiki/kikakukanko/2/6/1842.html> (접속일자: 2026.04.09.)

□ 지속가능한 해업(우미교) 관련 사항

- 어업 중심의 보존과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업(우미교)를 운영함
 - 후나야의 본질은 어업시설로 어부가 사라지면 경관 보존이 어렵다는 원칙 하에 어업 활동 보호를 우선으로 함 (현재 개인 어업 20여명을 포함해 회사소속 어업까지 약 50여명이 어업 종사)
 - 단순 관광을 넘어 후나야 내부 가이드 투어,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식당 운영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창출함
 - 과거 지역주민이 새벽 어업과 주간 관광업을 병행하다가 부담을 느끼고 지속한 경험으로 인해 기존 생업을 훼손하는 관광은 지속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음
-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갈등이 존재함
 -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쓰레기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주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 확대 등 관광인프라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현재 수준 유지에 대해 주민 간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음

[이네초 이네 약속]²⁷⁾

- 이네초의 전통과 어촌 문화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지역에 어울리는 관광객을 보내달라는 취지에서 2021년부터 일부 해외 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수용 조건인 “이네 약속”을 제시
- 이네초 방문객에게 이네초 지역주민 생활 배려 등을 웹사이트 및 안내판으로 게시

26) <https://www.town.ine.kyoto.jp/soshiki/kikakukanko/2/6/1/index.html> (접속일자: 2026.04.09.)



**이네의 후나야는
관광지가 아님**

이네의 후나야는 영소 구역이 아닙니다. 후나야는 어부와 주민의 생활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후나야를 활용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후나야는 보편적이고 매력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후나야나 후나야를 활용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일부를 피부로 느껴 주셔, 관광지가 아닌 생활감을 체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네의 후나야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네의 후나야는 개인의 소유물이며, 후나야나 모실은 물론, 그 부지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불법 침입은 형법 130조에 규정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개인 정보 보호
배려해 주세요**

이네의 후나야나 모실에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드는 바다 쪽에는 세탁물을 알리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은 충분히 배려하신 후 촬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어항이나 후나야 주변에서 주민에게 카메라를 향하는 분에 대해서는, 피사체가 되는 분에게 촬영의 동의를 허락해 주도록 (뜻이) 노력해 주세요.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이네의 후나야 주변에는 많은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어부는 이른 아침부터 출어하기 때문에 밤에는 알뜰히 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시끄럽거나 주차장에서 아이들놀이로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충분
조심하세요.**

이네의 후나야 주변에는 도로, 도로폭이 좁게 되어 차와 관련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는 주민의 생활 도로이며, 노선 버스도 통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에서의 주차, 사유지의 주차는 많은 차량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협조 해주세요.**

이네의 후나야 주변 지역에서는, 육상은 물론 해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주민이나 현지 기업의 여러분으로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출어, 채취할 수 있도록, 반입된 쓰레기는 그대로 가져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네초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주민 배려 안내문

출처: <https://www.ine-kankou.jp/first>



이네초 관광협회 등 관계자 인터뷰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답사 사진



이네초 후나야경관 및 내부 공간

27) <https://www.jnto.go.jp/projects/regional-support/casestudy/3905.html> (접속일자: 2026.04.09.)



후나이를 활용한 숙박공간



지역주민이 구성한 조식이 운영하는 관광시설(후나야 비요리)



퇴직한 어부가 운영하는 해업(우미교)



관광 수익으로 설치한 무단 출입금지 안내판



관광객 평은 침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판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Ⅲ. 출장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기대효과

- 일본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일본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일본의 민관협력형 어촌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한국의 어촌재생 사업에 반영
- 한국보다 앞서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및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정책의 운영성과를 파악하여 어촌뉴딜 3.0 사업에 참고
 - 지역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멀티워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파악
 - 수산자원, 어업자원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어촌체험마을에서 나아가 어업체험을 통한 어촌관광 지역만들기 전략 성공사례 파악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 행정(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별 접근방식과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거점시설 조성 이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시설 조성에서 운영까지 일괄 위탁하여 지역활력의 거점을 만들어 가는 민관협력형 선진사례에 대한 운영전략 및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파악
- 유허 어항시설 및 빈집, 빈건축물을 지역일자리와 지역이주정책 사업과 연계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여 국내 어촌어항재생 정책에 참고
 - 어촌유허프로그램,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멀티워커를 위한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체험공간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유허자원 활용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 어촌재생을 위해 수산업 뿐 아니라 농업, 관광업, 상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연계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어항중심의 마을단위 사업에서 벗어나 섬 전체,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활용
 - 어업협동조합, 마을주민, 상인회, 관광관련 협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방문객 유입과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파악

2. 시사점

□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정책 사업 추진

- 지역의 역량있는 민간조직이 거점시설 운영, 지역이주 정책을 위한 앵커조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민간사업 연계
 - 오노미치 U2는 유허 항만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프로그램 기획, 건물 리모델링 설계까지 담당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사업방식으로 운영

- 민간사업자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가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활력 도모
- 비영리조직인 오노미치 빈집재생 프로젝트 운영 기관은 빈집활용과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링커조직으로서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
-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는 오노미치 U2사업자로 참여했었으나 사업 구조 조정을 거쳐 셰어오피스와 소규모 숙박시설,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노미치시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원
- 아와지섬의 파소나그룹도 숙박, F&B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아와지섬 폐교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아와지섬의 활력을 도모
- 특히 파소나그룹은 본사를 아와지섬으로 이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공공이 주도하되 역량있는 민간조직 참여와 앵커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육성하여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 카미카츠초는 우체국이 주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고풍자 맞춤형 나뭇잎 판매사업을 만들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제로웨이스트 건물을 지어 주민 스스로 폐기물 제로 마을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독려
 - 이네초는 행정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되, 지정관리자제도²⁸⁾를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위탁

□ 다양한 지역공동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비지원 사업 프로세스

-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서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참여주체가 확정되면 국비지원하는 프로세스
 -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수 조건인 항만 우미교 프로젝트는 사업구상서에 제시한 각 시설 운영과 조성을 담당할 민간참여주체가 선정된 이후에 국비지원
- 지정관리자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 오노미치 U2, 아와지섬 폐교활용 사업, 오노미치셰어 등도 민간사업자가 운영프로그램과 건물 조성까지 일임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 선정이 국비지원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짐

□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생활인구유입, 관광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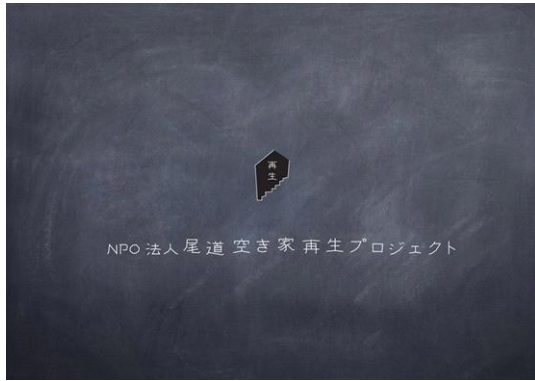
- 항만창고, 폐교 등 지역의 유휴자산을 우선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숙박, 셰어오피스,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 운영
 - 오노미치 U2, 오노미치셰어, 파소나 그룹의 노지마스코라 등 관광, 숙박,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
 - 오노미치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민간주도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숙박, 교육, 식당, 체험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 생활인구와 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

28) 민간에게 공유재산이나 공공공간 운영을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재임대가 가능하며 운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을 지정하는 제도

□ 지역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향상과 지역이주 정착에 기여
 - 카미카츠초는 지역특산품으로 나뭇잎 활용한 1차 산업을 운영, 고령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여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 이네초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전통가옥을 리모델링한 숙박, 레스토랑을 운영하지만 어민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 전문가 영역과 주민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IV. 취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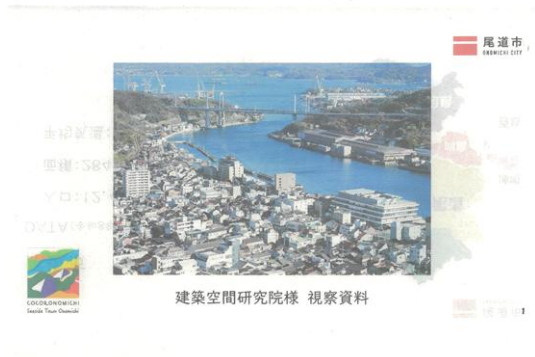


오노미치 NPO 빈집재생프로젝트 발표자료

韓国政府海洋水産部、漁村漁港公団および当研究院様視察資料

令和8年3月20日(金)
伊根町観光協会

오노미치시청 농림수산물과 자료



오노미치시청 상공과 소개자료



오노미치세어 운전자(디스커버리링크 세토우치) 사업 소개
자료

パソナグループが挑戦する
地方創生への取り組み
～淡路島で実現する真に豊かな生き方・働き方～



아와지섬 시찰 자료(파소나그룹)